

토마호크 美 해군의 최우수 무기로 부상

미국 이 1993년 6월 26일 이라크 정보본부를 강타하기 위하여 토마호크 순항미사일을 23기나 발사한 것은, 미국의 군 및 정치 지도자들 사이에 장거리 무기 사용의 지가 증대되고 있다는 것을 상징한다.

순항미사일은 일부 항공작전을 수행하는데 2가지의 우수성, 즉 사람을 필요로 하지 않는 점과 탄두를 다양하게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을 갖는다.

최근 미국이 토마호크 미사일을 사용한 것은, 1986년 미국이 대 리비아 급습 계획 수립 당시 보다도 장거리 미사일을 사용하는 것이 군사 계획 입안자들로서는 훨씬 더 익숙하고도 편하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다.

리비아에 공격을 감행할 당시, 토마호크를 탑재한 美 해군 함정이 연안으로부터 수백마일 떨어져 있는 리비아군의 표적을 강타하기 위해, 영국에 있던 공군 폭격기들이 지중해를 지나 이베리아 반도 부근까지 비행해 가야 했었다.

반면 지난 6월 26일 이라크 공격 당시에는 미 해군 함정중 페르시아만에서 순양함 1척과 홍해에서 구축함 1척으로 부터 발사된 토마호크 23기중, 예정했던 표적에 도달하지 못한 것은 불과 3기 뿐이었으며, 항공기에서 투하한 그 어느 무기보다도 실패율이 훨씬 낮았다고 군 관리들은 밝혔다.

토마호크의 사정거리는 핵 탄두 장착시 1,350해리이고 재래식 탄두 장착시는 약 600해리 정도이다.

그러나 디지털 지도자료가 불충분할 경우에는 신속한 임무 계획이 어렵고, 일단 발사후에는 미사일에 어떠한 명령도 수정시킬 수가 없는 것 등과 같은 몇가지 단점도 있다. 토마호크는 자체보유 컴퓨터에 입력된 지형자료와 실제 지형을 대조해 가면서 표적까지 찾아간다.

관리들에 의하면, 현재 美 해군 함대에 배치 중인 최신 모델 Block III 토마호크에는 임무계

획을 보다 쉽게 하기 위한 작업이 진행중이라고 알려졌다.

토마호크가 배치된지가 거의 10여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널리 사용된 것은 1991년에 있었던 걸프전 때 뿐이었으며, 당시 美 해군의 전함, 순양함, 구축함 및 잠수함으로부터 모두 288기가 발사되었다.

미 해군에서는 6~8개월간에 걸쳐 토마호크가 장차 연안해역에 대하여도 교전할수 있다는 것을 분석 및 위계임을 통하여 충분히 실증하였고, 이 실증자료를 기초로 하여 미 해군은 성능이 대폭 개량된 Block IV 프로그램에 착수하고 있다.

향후 6년동안 개발비 4억달러를 투자하게 될 경우 Block IV는 이동표적 타격 능력이 월등히 개량될 것이며, 표적까지 비행하는 동안 항공기에서 미사일 통제도 가능하게 될 것이다. *

